

불자 세상보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가 또 한 번 테러를 당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그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프랑스가 최근 테러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 '샤를리 엠프' 테러로 17명의 사상자가 희생되었고, 지난 해 12월 디종에서도 군중에게 차를 몰고 돌진하여 11명이 다쳤으며, 그 하루 전에는 주레투르에서 경찰서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일련의 테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에 테러공격이 집중되는 것처럼 잇따르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프랑스에 소외된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들 중 정부의 이민정책에 불만을 가진 일부 극단주의자가, 급진화, 과격화(Radicalization)하여 소위 '지하드(성전)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러나 테러의 위협이나 위험 또는 실제 테러사건이 위단 파리의 문제이겠는가,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현재에도 과연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테러와 테러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도 준비될 것 같지 않다. 우리 사회와 국민이 테러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테러기본법조차 갖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리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과연 나만의 기우일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먼저 최근 세계적 테러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IS(이슬람국가) 등의 주요 표적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동맹관계의 한국도 그들에겐 주적, 즉 주요 표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작은 표적'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의 일, 다른 나라만의 일인 양 불구경만 하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이론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범행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 범행을 실현할 매력적인 표적, 그리고 범행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보호능력의 부재가 바로 범행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그대로 테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테러의 동기를 가진 잠재적인 테러범을 살펴보자. 주요 테러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IS에도 급기야 한 한국 소년

이 가입했음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높은 실업률, 차별, 그리고 심화된 계층 간의 차이로 인한 심각한 상대적 박탈과 그로 인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대할 것이며, 이들의 급진화, 과격화(Radicalization)가 이들을 테러단체에 가담하게 하거나 스스로 운동형 외몰이가 되어 소위 자생적 테러(Homegrown Terror)라고 하는 '외로운 늑대(Lone Wolf)'가 되어 '무작위 폭력(Random Violence)'으로서 '물지 마 범죄' 식의 테러를 감행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잠재적 테러범들의 매력적인 표적으로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 테러범들의 표적 선택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에는 '상징적(Iconic)' 의미를 강조하는데, 한국의 경제력, 국력, 국가의 위상 등이 커짐에 따라 테러가 노리는 상징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9·11테러가 미국의 WTC를 노린 것은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대표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그런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의 맹방이고 아시아의 맹주 중 하나라면 더욱 상징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적어도 테러범의 작은 표적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우리가 바람 속의 등잔이 될 수 있고 점점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은 충분히 키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업무관련 국가와 정부조직을 통합하고,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임에도 '애국법(Patriot Act)'과 같은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여 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최근 일련의 테러사건을 겪은 이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테러법, 또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고 도청 등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테러기본법마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잠재적 테러범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은 아닌지 심히 두렵기까지 하다. 어차피 테러는 확산범죄이고 테러범들은 자기 확신에서 테러를 감행하기 마련이며, 우리도 그들의 작지만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제 남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테러로부터 잘 방어하고 보호하여 테러범들에게 테러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제만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기고

딸을 출가시킨 아버지의 편지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

사랑하는 딸 명아!
이 아버지는 50년 넘게 포교사로서 전국을 다니며 출가공덕을 강조하였으나 막상 네가 사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그 간 경솔했던 것이 아닌지 무척 후회스럽구나. 11월 10일 오전, 경남 함안 소재 '발원동사'라는 사찰에서 주지 스님 집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사별의식이 진행되었지. 너의 머리카락이 비단으로 홀날리는 걸 두 눈으로 마주했을 때의 그 심정은 세상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았다. 조계종 포교사 이전에 나도 한 자식의 애비였기 때문이란단. 게다가 허영없이 눈을 흘리는 너를 보니 그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가 원망스러워 나 자신을 경멸하기도 했다. 딸 명아! 1970년대 후반 아들 둘, 딸

“딸아, 어둠 밝히는 빛으로 거듭나거라”

하나 3남매가 연년생으로 태어나 나에겐 한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힘들어 할 때도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발탁돼 가정을 뒤로한 채 포교에만 매달렸다. 아마도 이 못난 애비가 너희들에게는 언제나 잠깐 쉬어가는 존재였겠지. 집도 절도 없이 단칸방 생활보장조차 못하는 무능력한 가장이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너희 엄마가 늦게나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살림을 꾸려나가 가정이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 이런 분위기에 서 너희들은 이 애비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고, 정서불안과 반항성이 극에 달했다. 그래도 네 엄마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다독였지.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야 함에도 애비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막내만 빼고 전부 상급학교를 못 보았으니 말이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챙겨주지 못한 죄책감은 명어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구나.

너는 본래 성품이 착하여 남들과 잘 어

울렀고, 대인관계가 깔끔해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하다 싶더니 아나나 다들까 네가 보면 문자에 심정이 떨려 내려앉는 듯했다.

“아버님! 출가를 위한 마음의 준비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높은 이상과 희망보다는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처님 법을 나누면서 자비로움을 행할 수 있는 승려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요, 부처와 중생도 하나임을 아버님의 불이(不二)법문에서 알았기에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외로움과 서글픔에 쌓여 내 자신을 허덕이게 했던 시간들이 제겐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효를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절 이만큼 불교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딸 선명 드림.”

사랑하는 딸 명아. 어제 사별 전에 지어준 불명이 등명(燈明)이더구나.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만 주변을 밝힐 수 있

다. 잘 타면 세상이 밝을 것이요, 잘못 타면 세상에 화를 입히는 재앙이 될 것이다. 또 수행공부 열심히 하면 큰스님이 될 것이고, 세속에 있을 때 같이 유혹을 끊지 못하면 출가할 때보다 못한 잡승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속인들보다 못 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 본래 의무와 책임을 뒤로한 채 현실의 영욕에서 빠져 등불이 밝지 못해서다. 그래서 종교무용론이 나오고 종교 공해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진정으로 밝게 비추주는 등불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욕구는 시대의 바람이니 네 불명을 등명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세세생생 공덕 없이는 이를 수 없다는 승려의 길을 택하여 떠나는 등명! 갈고슬만 달라졌다고 스님 되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파사현정으로 무장하여 단단한 금강석 같은 발심출가를 늘 가슴에 새기길 바랄 뿐이다.

법인관리법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조계종이 최근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종단 관련 법인들을 관리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인 관리 정책의 운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 관리 행정의 법 질서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제204차 중앙총회 정기회를 거쳐 1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법인관리법은 현재 '법인의 권한 침해 금지'를 골자로 한 제6조가 문제가 된다. '필요에 따라 종단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라는 문구는 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선 법인들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또한 문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이 이뤄지면서 협의기구를 통해 법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해당부서는 총무원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 발의였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거칠 수 없

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협의기구를 무력화하는 해명이다.

또한 11월 17일 공고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도 법인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이는 종법 질서는 물론 법인 간 형평성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면 지난 총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미등록 법인 규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법인 관리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민법의 영향을 받는 법인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상이하다. 이를 조율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우선이다.

법인과의 사전협의의 절차를 지키고, 종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예 조치는 이뤄져서는 안된다. 법은 만인에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본사 1:1 군포교 지원 환영한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가 지역 상급부대들과 1:1 결연을 맺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6일 제 42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군법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교구본사는 지역에 위치한 사령부 및 군사학교 등의 상급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예하부대를 포함한 군법당에 불사 및 주요 법회·위문품 보내기·장병 위문 등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군법당은 지역사찰 현안 사항 유기적 협조 및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석·군악대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 따르면 전국에서 140명의 군종법사들이 군포교를 하고 있고, 노산훈련소산 해도 1년에 10~12만명

의 장병들이 수계를 한다. 군법당만 400곳에 이른다

군종교구에서 햇땀 전달 및 GOP·GP 근무자를 위한 북카페 조성, 자장면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교구본사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포교는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이다.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10년 뒤 불교 발전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불자 퇴역 장교와 장병들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불자 장병들의 경우 제대로 복학이 이뤄지면서 신생활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지역사회와 본사가 함께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면 군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페이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홈페이지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홈페이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때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s.co.kr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표 : 범선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聖鐘社